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 13

주간 달러/원 동향(1/6~1/1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제조업황 개선에 위험선호 심리 나타났으나 중국 당국의 위안화 절하 용인 시그널로 인한 위안화 약세에 동조화되며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트럼프 관세정책 조정 기대감에 달러 약세 나타난 가운데 국민연금 환해지 추정 물량이 유입된 영향으로 큰 폭 하락
- 중반, 미 고용 및 서비스업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도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폭 제한
- 후반,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강달러 기조를 자극하자 환율은 추가 상승. 이어 주 후반, 신중한 정책 기조를 강조한 연준 위원 발언과 미 고용지표 발표 전 경계감에 의한 달러 강세에 상승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0.0	1,475.0	1,444.5	1,465.0	-5.0

달러/원 전망

- 미국 12월 비농업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영향을 반영 달러 강세 기조가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도 소폭 상승 흐름 나타낼 전망.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제약될 것이란 측면도 연준의 매파 성향을 자극할 것으로 보임
- 여전히 대내적 원화 강세 요인 부재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나, 주 중반 미국 물가 지표 발표 등에 대한 관망과 환율 상단이 높아짐에 따른 고점 인식 수출 관련 달러 매도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예상거래범위
1,465원 ~ 1,485원

엔·유로화 동향 (1/6~1/10)



유로화 동향

- 주초, 독일 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ECB의 급격한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린 영향으로 유로화는 강세 출발. 이어 유로존 인플레이션 반등 흐름에도 미 서비스업 가격 상승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지연 우려감이 강달러를 견인하며 약세 전환
- 중반, 유로지역 경제심리가 전월보다 위축되었다는 소식에 추가 약세를 보임
- 후반, 미 비농업 고용지표 호조에 연준 금리동결 전망이 강화된 가운데 글로벌 강달러 영향 속 1.02달러대로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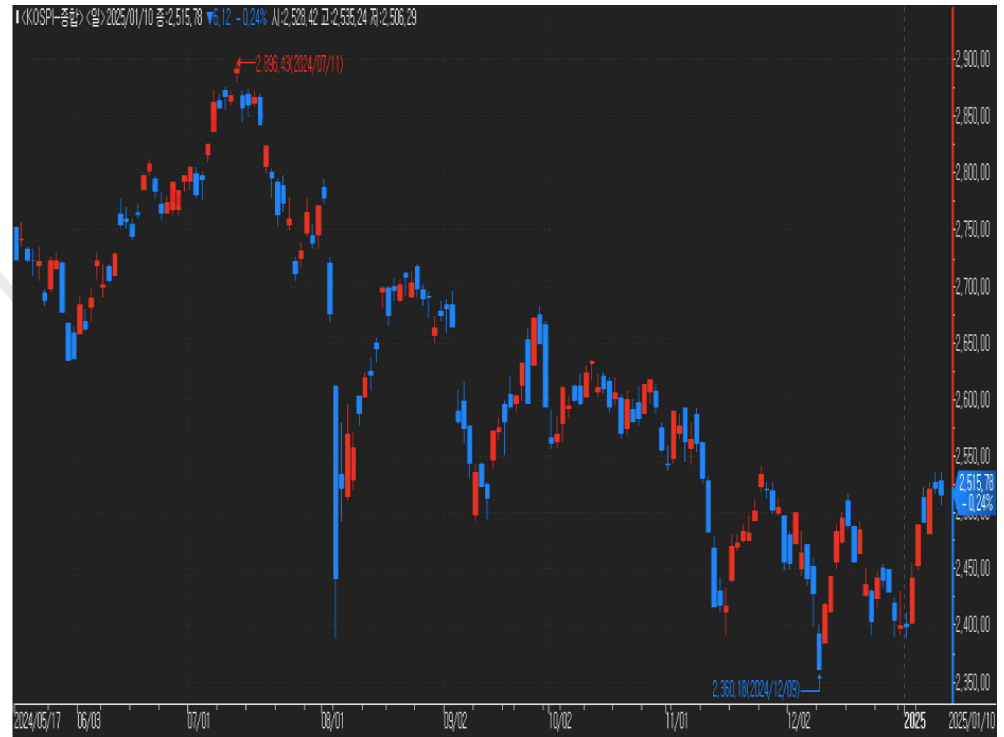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서비스업 PMI 개선에도 예상치를 밑돌며 회복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인식에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가토 일 재무상이 구두개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이 이어짐
- 중반,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시행 우려에 달러 매수세 나타난 영향으로 엔화는 큰 폭의 약세를 실현
- 후반, 일본 임금인상 전망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BOJ의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과 1월 금리인상 기대감 등에 약세 되돌림 후 157엔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306	1.0436	1.0214	1.0245	-0.0061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7.3	158.9	156.2	157.8	+0.5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6~1/1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경기 확장세(ISM PMI 지수 0.9포인트 상승) 등에 따른 경기 호조 속 글로벌 위험 선호 영향 등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세에 연동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축소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미 국채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상기 보도 내용 부인 등으로 재차 미 금리는 장중 반등. 반면 국고채 금리는 보편 관세 축소 소식을 크게 반영한 가운데 연준 매파 성향 완화 등의 기대 속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매입 등으로 하락 추세 전환 시현
- 중반 들어, 연준의 금리인하가 더욱 미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커지며 미 국채금리는 상승흐름을 보였으나, 국고채 금리는 이와 다소 디커플링 되는 가운데 수급상 로컬 매수 확대 등으로 하락 지속
- 후반 들어, 특히 재료 부재 속에 1월 금통위에 대한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되며 하락 후, 미국 12월 고용지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장중 이어지며 국고채 금리 상승 흐름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국내 수출 경기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 제조업 PMI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국내 개선된 12월 수출 실적 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 상승 출발. 이어 미 관세정책 변경 소식 속에 저가 매수세에 따라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탄핵 이슈 리스크 상존 속에 1%대 저성장 경고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못 미친 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연속 순매수 등이 지수 상승 이끌며 4거래일 연속 상승
- 후반 들어, 단기 급등 이후 코스피 매물 소화과정 흐름 속 글로벌 투자자들 디스카운트 인식 등이 외국인 순매수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후, 주 후반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성 매도 물량 출회 및 12월 미 고용지표에 대한 관망세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